

“내년 시즌도 신·구 조화 ‘타이거즈’ 기대하세요”



KIA 홍세완 코치가 팀의 뜨거운 타격을 이끌면서 일구상 프로지도자상 수상자가 됐다. 그는 ‘신구조화’를 바탕으로 내년 시즌에도 뜨거운 타격을 기대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일본 = 김여울 기자 YouTube 광주일보

타율(0.301), 출루율(0.459), 장타율(0.369), OPS(0.828) 1위, 홈런(163)은 삼성과 NC에 이어 3위. KIA 타이거즈의 2024시즌은 뜨거웠다.

KIA의 홍세완 타격 코치는 “팀을 리그 최고의 핵타선으로 만들어줬다”는 평가와 함께 일구상 프로지도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선수를 덕분에 상도 받아본다”며 웃은 홍 코치는 ‘베테랑’의 힘을 이야기한다.

최고참 최형우를 필두로 89동기 나성범, 김선빈, 서건창, 김태군이 그라운드 안팎에서 후배들을 이끌어갔다는 게 홍 코치의 설명이다.

그는 “선배들이 자기 야구만 하는 게 아니고 후배들한테 조언도 하면서 팀이 잘 되기 위해 노력했다. 형우나 선배들이 덕아웃에서 애들 안 됐을 때 한마디 해주면서 힘을 내게 해줬다. 코치는 늘 이야기하니까 잔소리로 들을 수 있는데 야구를 잘했던 선배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엄청 귀담아 들었다. 우리 팀이 바뀌었던 부분, 좋아졌던 점이다”며 “초반에는 어린 선수들이 베테랑에게 많이 의지했는데,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베테랑들이 힘에 부쳤을 때 후배들이 짝 올라왔다”고 말했다.

타선의 고른 활약도 올 시즌 우승 비결이다.

홍 코치는 “올 시즌은 특별한 타격 슬럼프가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4-5명 선수들이 잘해주고 다른 선수가 못 해도 티가 안나는 모습이었다. 돌아가면서 잘 해주어서 꾸준하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도영의 뜨거운 질주도 빼놓을 수 없는 힘이였다. 홍 코치는 지인을 통해 동성고 2학년 시절 김도영의 존재를 알게 됐다. 유튜브로 경기 영상을 본 그는 “충격적이었다. 완성형의 선수였다”고 당시를

일구상 프로지도자상 홍세완 타격코치

베테랑·백업 가리지 않고

슬럼프 없이 고른 활약

‘완성형 선수’ 김도영

다른 팀 견제 차분히 대처해야

떠올랐다.

홍 코치는 “고등학교 때는 조금 말랐다는 느낌이었는데 여기 와서 웨이트 트레이닝이랑 꾸준히 하다 보니 몸도 탄탄해졌다”며 “다른 선수와 다른 점은 갖고 있는 힘을 모두 다 쓴다는 것이다. 힘 좋은 애들도 30-40%밖에 못쓰는 경우도 많은데 120% 힘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다. 타구 날아가는 게 다르고, 그래서 홈런도 많이 나온다. 이런 선수가 또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김도영의 2024시즌을 이야기했다.

홍 코치가 짚는 김도영의 또 다른 장점은 ‘스피드’다.

홍 코치는 “워낙 파워도 있지만 뛰는 스피드도 좋다. 보통 타자들이 슬럼프 오면 길 수가 있는데, 도영이는 길게 올 수가 없다. 워낙 빠르니까 내야안타나 기습 번트해서 안타가 나올 수도 있다. 여러 장점이 많아서 슬럼프가 와도 그렇게 길지 않다”며 “우리가 봤을 때는 슬럼프가 아닌 것 같은데 자기는 지금 슬럼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안 좋을 때 해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그래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도영의 꾸준한 질주는 예상하지만 걱정은 있다. 내년 시즌이 김도영과 팀에 중요할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홍 코치는 “내년 시즌이 중요하다. 내년만 어느 정도 유지하면 평탄하게 쪽 올라갈 선수다. 꾸준히 잘하는 게 쉽지 않다. 내년에는 다른 팀도 견제를 많이 할 것이다. 차분하게 잘 대처를 해야 한다. 초

반에 안 되다 보면 길어질 수가 있다. 멘탈적으로나 게임 중에 이런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잡아야 한다.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다”고 말했다.

‘타격의 팀’으로 주목을 받았던 올 시즌, 타격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만큼 부담도 컸다. 내년 시즌도 많은 이들은 KIA의 타격을 주목하고 있다. 걱정도 되지만 예년 우승 시즌과는 다른 ‘신구조화’가 믿는 구석이다.

홍 코치는 “신구조화가 잘 이뤄져야 하는데 우리 베테랑들은 기본적인 실력이 있다. 다들 기본은 할 것이다. 그 뒤에서 변우혁, 박민, 박정우 이런 선수들이 내년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한다. 선배들은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으니까 어린 선수들이 조금만 더 해주면 선배들이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그게 내년 시즌 목표다”며 “그런데 올 시즌에 나성범, 이우성, 김선빈 이런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는데 백업들이 티 안 나게 너무 잘해줬다. 시즌 하다가 보면 부상 선수가 무조건 나오는데, 그 선수들을 얼마나 뒷받침 해줄 것인가가 문제다. 캠프에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훈련하고 만들었다. 기대가 된다. 한국시리즈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다.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 선수들이 더 시험 많이 나가면서 하게 되면 베테랑, 기존 선수들이 긴장하면서 경쟁 구도가 생기고 팀은 더 탄탄해진다”고 설명했다.

홍 코치는 오키나와 캠프에서 ‘자세’를 강조하면서 꾸준한 강팀 만들기에 주력했다.

그는 “공을 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대처가 잘 안될 수 있다. 타이밍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다. 선수들이 필요한 부분, 안 되는 부분을 보고 보완해 나가고 있다. 미리 준비해서 타석에 서야 한다. 준비가 안 되면 타석에서 불안하다.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나갈 수 없게끔 하려고 한다”며 “매년, 매 게임 잘할 수는 없다. 선수들이 경기 나가서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겠다. 잘하면 선수가 잘한 것이고, 못 하면 코치가 못하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글·사진=wool@kwangju.co.kr

KIA 박찬호 2년 연속 ‘KBO 수비상’ 수상

KIA 타이거즈의 유격수 박찬호가 2년 연속 수비상 주인공이 됐다.

KBO가 25일 내야수와 포수 부분 수비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내야수 부문에서는 유격수 박찬호와 함께 1루수 오스틴(LG), 2루수 김혜성(키움), 3루수 허경민(KT)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포수 수상자는 LG 박동원이다.

박찬호, 김혜성, 허경민은 초대 수상에 이어 2회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찬호는 투표 점수 67.5점, 수비 점수 22.5점 등 총점 90점으로 82.5점의 오지환(LG)과 78.75점의 박성환(SSG)을 제치고 다시 한번 단상에 오르게 됐다.

지난해 신설된 KBO 수비상은 투표 점수

75%와 수비 기록 점수 25%를 합산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투표인단으로는 각 구단 감독, 코치 9명, 단장 등 구단당 11명씩 총 110명이 참가한다.

수상자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리는 KBO 시상식에서 트로피와 200만 원의 상금을 받는다.

이날 박찬호와 함께 김도영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전망이다.

KBO 시상식에서는 ▲퓨처스타리그 투타 개인 부문별 1위 ▲KBO 리그 투타 개인 부문별 1위 ▲KBO 심판상 ▲수비상 발표와 시상식이 이뤄진다. 또 2024시즌 최고의 신인과 최고의 선수도 발표된다.

기록적인 시즌을 보낸 김도영은 이날 MVP로 단상에 오르며 트로피 수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가 짚은 최고의 선수가 된 김도영은 25일에는 한국 프로야구 OB 모임인 일구회가 수여하는 일구상 최고타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고 투수로는 삼성 원태인이 이름을 올렸고, 두산 김택연은 신인상 주인공이 됐다. 올 시즌 KIA의 핵타선을 이끈 홍세완 타격 코치는 프로지도자상 수상자가 됐다.

2024 뉴트리티데이 일구상 시상식은 12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리베라호텔 3층 베르사이유홀에서 열린다. /김여울 기자 wool@

‘탁구 부전여전’ 유남규 딸도 세계 제패

한국 U-19 여자탁구 단체 세계청소년선수권 첫 우승
대만에 3-1 승…유남규-유예린 ‘부녀 세계대회 석권’

“한국이 2024 세계청소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더 많은 드라마를 약속하며 팀 역사를 새롭게 썼다.”

국제탁구연맹(ITTF)은 25일 스웨덴 헬싱보리에서 끝난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19세 이하(U-19) 여자단체전 결승에서 한국이 대만을 3-1로 꺾고 우승한 소식을 전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2003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가 시작된 이후 중국과 일본 외에 U-19 여자단체전에서 우승한 나라는 한국이 처음이다.

특히 한국의 여자 주니어 대표팀은 이번 대회 톱시드를 받은 세계 최강 중국을 준결승에서 3-2로 꺾는 ‘녹색테이블 반란’을 일으킨 뒤 여세를 몰아 결승에서 대만마저 돌려세우고 우승했다.

박가현(대한항공)이 대만과 결승에서 1단식과 4단식을 모두 잡았고, 최나현(호수문여고)도 2단식에서 승리하며 우승에 일조했다.

유예린(화성도시공사 유스팀)은 대만과 결승에서 첫 단식을 내줬으나 앞서 중국과 준결승에서 혼자 2승을 책임져 한국이 우승하는 데 결정적인 역

할을 했다.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이 단체전 정상에 오른 건 대회 출범 후 처음이다.

단체전 최고 성적은 남자팀이 세 차례 기록한 준우승이고, 여자팀은 2009년 대회와 2018년 대회 때 각각 동메달을 수확한 게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다만 남자단체전에서 2007년 정상은, 2013년 장우진(이상 세아)이 각각 우승했다.

성인 대표팀을 포함해서는 한국이 세계 대회 단체전에서 우승한 건 남북 단일팀으로 출전했던 1991년 지바 세계선수권 이후 33년 만이다.

한국은 이에 앞서, 정현숙을 앞세워 1973년 사리아보 세계선수권 때 한국 구기 사상 처음으로 여자단체전 정상에 오르는 ‘사리아보 기적’을 일으켰으나 이후 남녀 통틀어 세계선수권 단체전 우승은 지바 대회가 유일했다.

개인전에서는 1989년 도르트문트 세계선수권대회 때 유남규와 현정화가 혼합복식 우승을 합작했다. 현정화는 4년 후인 1993년 에테보리 세계선수



유남규·유예린 부녀.

권 때 여자단체전 우승 금자탑을 쌓았다.

양하은이 2015년 쑤저우 대회 때 중국의 쉬신과 호흡을 맞춰 혼합복식에서 깜짝 금메달을 따기도 했으나 이후 세계대회 우승과는 인연이 없었다.

한편 유예린이 세계청소년선수권에서 우승하면서 아버지 유남규 한국거래소 감독과 ‘부녀(父女) 세계대회 우승’을 완성했다. /연합뉴스

순천 김민수·김나연 전국 댄스스포츠선수권 정상

라틴 전 종목 1위…국가대표 선발

제15회 KPDC 전국 댄스스포츠 선수권 대회(2024년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순천시 댄스스포츠연맹 김민수와 김나연이 ‘최강 호흡’을 자랑하며 정상에 올랐다. <사진>

김민수-김나연 조는 24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 라틴 5종목(삼바, 차차차, 룸바, 파소도블레, 자이브) 결선에서 모든 종목 각 1위를 기록하며 최종 1위로 국가대표에 선발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 10월 열린 제105회 전국체전에서 댄스스포츠 사상 첫 전국체전 3연패를 달성한 바 있다.

이들은 “올해를 돌이켜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대회는 금메달 3연패의 영광을 남겨준 105회 전국체전이다. 전국체전 이후 올해 마지막 대회가 자 2024 국가대표 선발전을 위해 쉽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2025년도는 국가대표로서 국위선양을 위해 올해와 같이 2-3년의 국제대회출전과 전남도에서 시행하는 특별강화 훈련을 통해 기량 향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기력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전남연맹 김재웅 회장님과 김승이 감독님께 항상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순천시댄스스포츠연맹 임진수-임세빈 조는 스탠드 5종목(왈츠, 탱고, 비엔나왈츠, 퀵스텝, 슬로우 포스트롯)에서 3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선발된 각 종목 상위 3개 조는 국가대표로서 내년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